*영어어문교육 16*권 **3**호 **2010**년 가을

영어 듣기수업에서 받아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인식

남 은 희*
(중앙대학교)
성 명 희**
(을지대학교)

Nam, Eun-hee & Seong, Myeong-hee. (201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dictation practice in English listening clas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3), 231-251.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dictation practice in English listening classe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5 factors with regard to dictation practice: participation, usefulness, interest, motivation, and confidence. For the study, the research was implemented for 15 weeks with 41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had dictation practice in their English listening classes on a regular basis for one semester. At the end of the semester, a questionnaire was used to find out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dictation practice. For the analysis of the subject's responses, first, a descriptive analysis was administered. After that, a correlation analysis was done to explore what the relations among 5 factors were. Results indicated that most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lass, and they regarded dictation as a very useful practice in their listening classes. Also, the dictation practice motivated students not only for English listening but also for overall English studying. However, more than two third students showed low interest and confidence in the class. As for the correlations among 5 factors, there were very strong correlations between usefulness and motivation, usefulness and confidence, interest and motivation, interest and confidence, and confidence and motiva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presented and some guidelines for effective dictation practice were suggested.

[English listening/dictation practice/TOEIC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영어 듣기/받아쓰기/토익 듣기능력 시험]

* 제1저자 ** 교신저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 서론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듣기는 다른 언어 기능에 우선한다. 듣기는 모국어 습득 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며(Postovsky, 1981; Solobin, 1985), 외국어 학습에서도 듣기 능력이 말하기 능력보다 우선될 때 학습이 효과적이다(Asher, 1997; Dunkel, 1986; Feyten, 1991; Scarcella & Oxford, 1992)라는 이론들은 언어 습득과 학습에 있어 일관되게 지지 받고 있다. 특히, 외국어 수업에서의 무리한 말하기 강요는 지나치게 모국어에 의존하게 되고, 불안감이 고조된다는 인지적, 정의적 요인을 들어 말하기 교육에 비해 듣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Gary와 Gary(1981)의 주장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이라는 현재의 영어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주지하여야 할 의의가 있다.

듣기는 우리가 주위에서 들리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그 의미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다(Underwood, 1989). 그러나 실제 영어 듣기수업에서 학습자가 듣기 자료에 집중하여 듣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수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미 해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듣기란 말하기를 통해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수동적인 기능이라는 인식은 듣기 수업이 극복해야 할 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효과적인 듣기 수업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교수자의 적극적인 수업 주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에 교육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보다 권장되며, 이의 일환으로 받아쓰기가 추천된다.

받아쓰기는 언어교육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수방법으로 그 효과에 대한 풍부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받아쓰기는 음성과 문자를 연결 하는 교수 방법으로 성격 상 듣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언어의 네 가지 기능 모두에서 유용한 언어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Frodesen, 1991; Goodman, 1986; Kim, 2008; Krashen, 1981; Oller, 1972). 또한 받아쓰기는 언어 학습의 촉매제(Krashen, 1981)가 되며 언어학습에의 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Nakamura, 1987). 나아가 학습자의 자발성을 유도하고, 흥미로운 언어 연습이 되며. 학생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어 대규모 수업에도 적합하다는 Davis와 Rinvolucri(1988)의 제안은 우리나라 교실환경에서 실행해볼 만 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본 논문은 전술한 받아쓰기의 장점에 대해 주목하고, 실제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실행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받아쓰기가 듣기 수업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가, 영어 학습에 유용하다는 인식을 주는가, 듣기 수업에서의 흥미를 유발하는가, 영어 학습에의 동기를 유발하는가, 그리고 받아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신감은 어떠한가 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듣기 수업에의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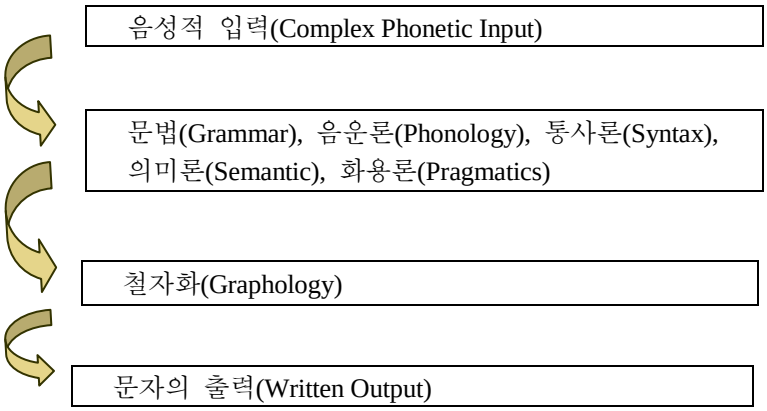
1)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에 대한 참여도, 유용성, 흥미도, 동기유발, 자신감은 어떠한가?
2) 받아쓰기에 대한 5 가지 요인(참여도, 유용성, 흥미도, 동기유발, 자신감)이 토익 듣기 성적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있는가?
3) 받아쓰기와 관련한 5 가지 요인들(참여도, 유용성, 흥미도, 동기유발,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받아쓰기란 교수자가 제공하는 발화문을 학습자가 들으면서 글로 옮겨 쓰는 활동(Oller, 1972)으로 눈으로 본 문장을 베껴 쓰는 것과는 구별된다. Oller(1972)는 받아쓰기란 들려 주는 내용을 식별하고 자신의 문법적,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지식, 그리고 담화 차원의 처리과정을 거친 뒤, 분석된 의미단위를 철자로 표현하여 문자화 되는 과정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받아쓰기 과정을 다음과 같은 표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1

받아쓰기 과정(Oller, 1972)



Oller(1972)가 도표로 제시하였듯, 받아쓰기는 들리는 자료가 문자화 되어 표출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언어 수업을 구성한다. 이러한 받아쓰기 수업에 대해 Lambert(1986)는 언어이해에 있어 청각에 의한 단일 입력보다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받아쓰기가 듣기와 들은 내용을 쓰기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형태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위한 훌륭한 교수 기술이 된다는 Byrne(1977)의 제언과 일맥한다 하겠다.

실제 받아쓰기를 영어 수업에서 활용할 때 그 방법은 유형을 달리 하여 몇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Paulston과 Bruder(1976)는 빈 곳을 채워 넣는 형태로 하여 받아쓰기를 부분 받아쓰기(partial dictation)와 전체문장 받아쓰기(complete or full dictation)로 구분한다. Sawyer와 Silver (1972)는 듣기 자료의 유형이나 쓰게 되는 길이에 따라 음소 항목 받아쓰기(phonemic item dictation), 음소 전문 받아쓰기(phonemic text dictation), 철자 항목 받아쓰기(orthographic item dictation), 철자 전문 받아쓰기 (orthographic text dictation) 등의 4가지로 나누었다. 음소란 다른 음과 대조를 이루어 뜻의 차이를 가져오는 최소의 단위 (예를 들어 pin과 bin에서의 p와 b)로 음소 항목 받아쓰기에 비해 음소 전문 받아쓰기는 상당히 긴 문장의 음소를 받아쓰게 하는 것이며, 철자 항목 받아쓰기와 철자 전문 받아쓰기는 발음을 들으면서 철자를 습득하게 하여 어휘력 학습에 유용하며 두 방법은 쓰는 길이에 따라 구분된다. 그 밖에 Oller(1972)는 일종의 부분 받아쓰기로서 빈칸 받아쓰기(cloze dictation)를 제시하였으며, Marchi와 Najul(1994)이 학습자로 하여금 그 문장이나 혹은 단락에서 꼭 쓸 줄 알아야 하는 내용을 받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요지 적기(note taking) 또한 받아쓰기의 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받아쓰기는 듣기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학습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지닌다. Frodesen(1991)은 받아쓰기가 보다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활용된다면 철자 학습과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표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속에서도 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언어 학습에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Krashen(1981) 또한, 받아쓰기 과정에서 학습자는 우선 들리는 내용의 발음을 이해하여야 하므로 쓰기 전에 생각하고 구상하게 되며, 쓰고 난 후에는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게 되므로 피드백의 효과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어 받아쓰기는 언어 학습의 촉매제가 된다 라고 하였다. Goodman(1986)은 학습자들은 듣기를 통해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며 역으로 읽기를 통해서 쓰기를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덧붙여 쓰기를 통해서 읽기를 배움으로써 받아쓰기 수업에서 모든 언어 기능은 상호의존적으로 습득된다고 주장한다. Oller(1972)는 받아쓰기 시, 학생 스스로가 어순과 어휘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듣기 능력이 우선 적용되고, 이후 들은 것을 재 구성할 때는 쓰기 능력이 동반되므로 학습자의 모든 외국어 능력이 동원된다 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받아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의 음운적 단위를 식별하는 능력,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 뜻을 형성하는 단어와 구의 경계를 구분하여 의미 단위를 결정하는 능력, 분석된 의미단위를 철자로 바르게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 네 가지 기능은 서로 독립되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상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관련성을 가지고 다른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을 설명한 것이다. 즉, 언어의 네 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한 기능의 향상은 다른 세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며 한 기능은 다른 기능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받아쓰기가 그 매개가 됨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받아쓰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모국어 습관(어순, 표현 방식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국어 양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재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는지 알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다. 국내에서 받아쓰기에 대한 연구는,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받아쓰기가 학습자로 하여금 네 가지 언어 기능을 통합하고 이를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된다(Kim, 2008)는 연구와 받아쓰기의 효과로서 전략 사용의 증진과 듣기 능력 향상의 정도를 알아본 연구(Nam & Seong, 2009) 등이 있다. 본 논문은 2009년 남은희와 성명희(2009)의 후속 연구로서 받아쓰기가 직접적인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외에 학습자의 태도와 인식에 관련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의 배경과 연구 기간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교양영어 선택과목으로 토익을 선택한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남학생은 8명(19.5%)이었으며 여학생은 33명(80.5%)였다. 연구가 진행된 기간은 15주로 이루어진 한 학기였으며, 일주일에 두 시간으로 배정된 토익 수업이었다. 토익은 과목의 성격상 읽기와 듣기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관계로, 토익 읽기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한 시간이 듣기 수업이 되어 받아쓰기를 실시 한 실제 실험 기간은 1주일에 1시간, 15주이다. 본 실험 전 받아 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41명의 대상자 중에서 28명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13명이었다(표 1 참조).

표 1
연구 대상의 배경

성별	N (%)	받아쓰기 경험	N (%)
남	8(19.5)	없다	13(31.7)
여	33(80.5)	있다	28(68.3)
합계	41(100)		41(1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 처치

영어 듣기 수업에서 효과적인 받아 쓰기에 대한 제언을 위해 학생들에게 실제 받아쓰기를 실시 하였다. 본 실험이 실시된 시간이 토익 수업이었으며 교재 역시 토익 교재였으므로 학생들이 접하게 된 받아쓰기는 토익 청해 시험(listening comprehension test)의 구성에 따라 달리 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토익 교재는 매 단원마다 청해 시험의 네 유형을 모두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 시, 토익 듣기 시험의 네 가지 유형에서 받아쓰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적용한 구체적인 받아쓰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토익 청해 시험에서 학생들은 4 부분으로 나뉘어 출제된 100문제를 접하게 된다. Part 1은 사진 묘사, Part 2는 질의 응답, Part 3는 두 사람 간의 대화, 그리고 Part 4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비교적 짧은 이야기로서 여기에는 안내문, 전화 메시지, 광고, 뉴스 기사 등이 포함된다. 모든 문제는 다지 선다형으로, 학생들은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을 찾는 형식이다. Part 1은 학생들이 듣고 답하여야 하는 내용이 짧은 문장들이므로 문장 전체를 받아쓰게 하였다. 이는 받아쓰기 유형 중 Paulston과 Bruder(1976)이 제시한 전체문장 받아쓰기(complete or full dictation)에 배경을 두었다. Part 2는 질문과 응답에 해당하는 사본을 제시하되, 정답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을 빈칸으로 남겨 놓아 채우게 하였으며, Part 3 역시 대화문을 제시하되 빈칸을 남겨 두어 이를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Part 2와 3의 경우는 Paulston과 Bruder(1976)의 부분 받아쓰기(partial dictation), Sawyer와 Silver (1972)의 철자 항목 받아쓰기 (orthographic item dictation), 혹은 Oller(1972)의 빈칸 받아쓰기(cloze dictation)의 일환이다. 다만 Part 4는 Part 2와 3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듣기 보다는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본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핵심어(key words)를 적도록 하였다. Part 4의 받아쓰기는 Marchi와 Najul(1994)가 제안한 요지, 혹은 핵심어 적기(note taking)와 동일하다.

받아쓰기 수업을 위해 연구자는 매 듣기 시간에 사용할 유인물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수업 전 해당 듣기 수업에서의 받아쓰기에 대한 지침을 공지하였다. 듣기가 끝난 후에는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토익 청해 답을 맞추어 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받아쓰기한 유인물은 제출하거나 타 학생과 교환하여 오답을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틀린 부분을 점검케 하는 자기 평가 방식을 취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 측정 도구

1) 설문지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해 본 실험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설문지이며, 모두 32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설문지 전반의 1번 문항과 2번 문항, 그리고 후반의 31, 32번 문항은 자유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외 3번부터 32번까지 30문항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등의 '5단위 리커트 방식(Five Point Likert Scale)으로 제작하였다. 자유 기술토록 한 문항 1과 2는 개인 신상과 받아쓰기 경험에 대한 문항이었으며, 31번과 32번 문항은 영어 수업에서 받아쓰기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나머지 3번부터 30번 문항은 받아쓰기 수업에서의 참여도는 어떠하였는가, 받아쓰기가 영어 학습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받아쓰기 수업에서 갖게 된 흥미의 정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았다. 그 외,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가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주는가, 받아 쓰기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인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어 듣기 수업에서 태도와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한 설문지의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받아 쓰기 태도와 인식에 대한 설문지 구성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수
개인 신상	1	1
받아쓰기에 대한 경험	2	1
참여도	3,4,5,6,7	5
유용성	8,9,10,11,12,13,14	7
흥미도	15,16,17,18,19,20	6
동기유발	21,22,23,24,25	5
자신감	26,27,28,29,30	5
받아쓰기에 대한 개인 의견	31,32	2

본 설문지는 한 학기 동안 영어 듣기수업에서 받아 쓰기를 실시한 후, 기말고사를 마친 당일 즉, 학기 마지막 날에 배부하였으며 20분의 시간을 준 뒤 회수하였다.

2)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

설문지 회수 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가 측정 도구로서 믿을 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먼저 문항별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 각 항목별(참여도, 유용성, 흥미도, 동기유발, 자신감) 문항 분석이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흐 계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문항 7번과 30번은 신뢰도를 해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삭제하였다. 아래의 표 3은 삭제된 7번, 30번 문항과 설문지 후반에 자유 기술토록 한 두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선택한 26개 문항을 영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3

받아 쓰기 태도와 인식에 대한 설문지 최종 구성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수
참여도	3,4,5,6	4
유용성	8,9,10,11,12,13,14	5
흥미도	15,16,17,18,19,20	7
동기유발	21,22,23,24,25	6
자신감	26,27,28,29	4

이와 같이 최종 선택한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가 측정 도구로서 타당한가를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한 받아쓰기 수업의 태도와 인식에 대한 설문지의 신뢰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받아 쓰기 태도와 인식에 대한 설문지 신뢰도

항목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 계수
참여도	4	3.80	.60	.808
유용성	7	3.45	.55	.794
흥미도	6	3.58	.76	.890
동기유발	5	3.60	.59	.723
자신감	4	2.86	.64	.820
최종 선택	26			.924

위의 표에서 보듯, 받아 쓰기 태도와 인식에 대한 설문지의 신뢰도는 .794에서 .890에 걸쳐 나타났다. 26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924로서 설문지는 믿을 만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3) 토익 청해 시험(TOEIC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본 연구에서는 영어 듣기 능력에 따른 받아쓰기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대상자들을 상대로 실험 전 영어능력 측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가 토익 수업에서 실행되므로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은 토익 청해 시험으로 하였다. 토익 청해 시험은 100문제로 만점 495점으로 환산되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1문제 당 1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최고점은 67점, 최하 점수는 38점이었다. 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성적 분포를 점검한 결과, 상위집단에 55점부터 67점까지 22명이 포함되었으며, 그 외 하위 집단에는 54점에서 38점까지로 19명이 해당되었다. 상위집단의 평균 점수는 60.77점이었으며, 하위 집단의 평균 점수는 46.26점이었다. 토익 청해 시험을 두 집단으로 나눈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토익 청해 시험에 따른 집단 분류

집단	인원(%)	듣기 능력 평균
하	19(46.3)	46.3
상	22(53.7)	60.7

IV. 결과 및 논의

1. 받아쓰기 수업에 대한 참여도, 유용성, 흥미도, 동기유발, 자신감

1) 참여도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실행 시, 참여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표 4와 같이 4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여 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받아쓰기 참여도 결과

문항 번호	설문 내용	①	②	③	④	⑤
		빈도 (%)				
(3)	나는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할 때 **듣기**에 **집중**하려 노력하였다.	0(0)	1(2.4)	4(9.8)	28(68.3)	8(19.5)
(4)	받아쓰기를 할 때 들리는 내용대로 받아쓰고자 노력**하였**다.	0(0)	2(4.9)	8(19.5)	26(63.4)	5(12.2)
(5)	받아쓰기 수업 시 바른 **영어 표현**으로 **쓰려** 노력하였다.	0(0)	2(4.9)	15(36.6)	19(46.3)	5(12.2)
(6)	받아쓰기 후 **정답 확인** 시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0(0)	5(12.2)	19(26.4)	19(46.3)	7(17.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의 표에서 보듯, 받아쓰기를 실시한 영어 듣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문항 중 세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답을 한 학생들이 1, 2명으로 5% 미만에 그쳤으며 한 문항에서만 5명으로 10%를 조금 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87.8%의 학생이 받아쓰기를 할 때 듣기에 집중하려고 하였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75.6%의 학생이 받아쓰기를 할 때 들리는 내용대로 받아쓰고자 노력하였다라고 하였다. 받아쓰기 수업 시 바른 영어 표현으로 쓰려 노력하였다라는 문항에는 과반 수 이상의 학생이 적극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받아쓰기 후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63% 이상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받아쓰기는 학생들을 듣기 수업에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2) 유용성

받아쓰기가 영어 학습에 유용하다고 인식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설문한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받아쓰기유용성 결과

문항 번호	설문 내용	①	②	③	④	⑤
		빈도 (%)				
(8)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사용하는 것은 **듣기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0(0)	5(12.2)	10(24.4)	19(46.3)	7(17.1)
(9)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는 **듣기 실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0(0)	7(17.1)	11(26.8)	16(39.0)	7(17.1)
	받아쓰기는 **영어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0)	받아쓰기는 **영어 어휘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0(0)	5(12.2)	10(20.4)	24(58.5)	2(4.9)
(11)	받아쓰기는 **영어 문법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0(0)	5(12.2)	11(26.8)	23(56.1)	2(4.9)
(12)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시간이	0(0)	8(19.5)	20(48.8)	12(29.3)	1(2.4)
(13)	많이 소비되어 **비효율적**이다. [1]	0(0)	6(14.6)	16(39.0)	18(43.9)	1(2.4)
	받아쓰기는 **영어 표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4))		0(0)	5(12.2)	20(48.8)	15(36.6)	1(2.4)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시행하여 본 결과, 학생들은 받아쓰기가 영어 학습에 대체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3.4%의 학생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사용하는 것은 듣기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1] 표 6의 (13)문항의 선택지는 ① 매우 그러하다 ② 그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으로 다른 문항과는 달리 역순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된다고 답하였으며, 56%의 학생이 받아쓰기가 듣기 실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표하였다. 또한 63.4%의 학생이 받아쓰기는 영어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어휘 학습도 61%의 학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답하여 듣기와 쓰기, 그리고 어휘 학습에 대한 받아쓰기의 유용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문법이나 영어 표현을 익히는 데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음이 나타났다. 받아쓰기가 영어 표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학생은 39%에 그쳤으며, 31.7%의 학생 만이 받아쓰기로 문법 학습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 답하였다. 그 밖에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비효율적이다라는 질문에는 14.6%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부정적인 답하였으나, 46%의 학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유용성과 관련한 이와 같은 결과는 받아쓰기 설문지 후반에 자유 기술토록 제시한 문항, 즉 받아쓰기는 영어의 어느 기능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과도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받아쓰기가 영어 듣기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이 27명으로 67.5%로 가장 많았고, 쓰기라고 답한 학생이 11명, 27.5%였다. 그 외 듣기와 쓰기 모두라고 답한 학생을 포함해 기타 의견을 제시한 학생이 2명으로 5%였다. 자유 기술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11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3) 흥미도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실행 시,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의 정도를 측정하여 보았다. 받아쓰기 흥미도에 관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받아쓰기 흥미도 결과

문항 번호	설문 내용	①	②	③	④	⑤
		빈도 (%)				
(15)	받아쓰기를 활용한 **듣기 수업**은 **흥미**가 있었다.	0(0)	11(26.8)	20(48.8)	8(19.5)	2(4.9)
(16)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후 **답을 확인**해 가는 과정은 활동은 **흥미**롭다.	0(0)	6(14.6)	22(53.7)	12(29.3)	1(2.4)
(17)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함으로써 이전보다 **영어 듣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0(0)	12(29.3)	17(41.5)	11(26.8)	1(2.4)
(18)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활동으로 **영어 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0(0)	13(31.7)	21(51.2)	7(17.1)	0(0)
(19)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함으로써 이전보다 **영어 듣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1(2.4)	12(29.3)	21(51.2)	7(17.1)	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0)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활동으로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1(2.4)	12(29.3)	17(41.5)	9(22.0)	2(4.9)

받아쓰기가 영어 학습에 흥미를 주는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도에 관한 6개 문항 전체에 걸쳐 보통이다라는 답을 한 학생이 50% 안팎이어서 받아쓰기가 영어 수업에 흥미를 주는가 하는 질문에는 과반수의 학생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문항별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문항 한 개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약간 높았고, 나머지 문항 3개는 부정적 의식이 높았으며 두 문항은 비슷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활동으로 영어 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받아쓰기를 통해 이전보다 영어 듣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활동으로 전반적인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3개의 문항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모두 31.7%로 부정적인 인식이 약간 높았다. 반면, 받아쓰기를 활용한 듣기 수업은 흥미가 있었다와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함으로써 이전보다 영어 듣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문항은 각각 25%에서 30% 안팎으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비슷하였다. 그 밖에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후 답을 확인해 가는 과정은 활동은 흥미롭다는 문항에는 31.7%의 학생이 긍정적인 답을 함으로써 14.6%의 부정적인 인식보다 다소 높았다.

4) 동기유발

듣기 수업에서 실행한 받아쓰기가 영어 학습에 동기를 유발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다섯 문항으로 설문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받아쓰기 동기유발 결과

문항 번호	설문 내용	①	②	③	④	⑤
		빈도 (%)				
(21)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1(2.4)	2(4.9)	9(22.0)	18(43.9)	11(26.8)
(22)	받아쓰기 학습 후 **영어공부를 더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0(0)	1(2.4)	7(17.1)	18(43.9)	15(36.6)
(23)	영어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해 봄으로써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0(0)	7(17.1)	18(43.9)	13(31.7)	3(7.3)
(24)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중 나타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게 위해 **노력**할 것이다.	0(0)	2(4.9)	11(26.8)	24(58.5)	4(9.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5)	본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해 본 뒤, 영어 학습 시, **혼자서 받아쓰기**를 해 볼 것이다.	2(4.9)	11(26.8)	16(39.0)	10(24.4)	2(4.9)

영어 듣기 수업에서 실행한 받아쓰기는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의 학생이 받아쓰기 학습 후 영어공부를 더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중 나타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게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답한 학생이 70% 안팎이었다. 반면, 영어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해 봄으로써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은 40% 가량으로 낮았다. 또한 본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해 본 뒤, 영어 학습 시, 혼자서 받아쓰기를 해 볼 것이다라는 항목에는 긍정적인 답과 부정적인 답이 30% 안팎으로 비슷하였다.

받아쓰기와 영어 학습 동기 유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받아쓰기가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의 동기 유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는 데까지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 유발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효과가 혼자서 영어 학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받아쓰기를 하도록 견인하는 단계로 이르게 하기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5) 자신감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실행 시, 그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받아쓰기 자신감 결과

문항 번호	설문 내용	①	②	③	④	⑤
		빈도 (%)				
(26)	받아쓰기 수업 후 **듣기 자료를 받아쓰기는 데에** 자신감이 생겼다.	2(5.0)	7(17.5)	27(67.5)	4(10.0)	0(0)
(27)	수업 중 경험한 받아쓰기로 **영어 듣기에 자신**이 생겼다.	1(2.5)	13(32.5)	19(47.5)	5(12.5)	2(5.0)
(28)	받아쓰기 수업으로 **영어 쓰기(작문)**를 **이전보다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4(10.3)	12(30.8)	21(53.8)	2(5.1)	0(0)
(29)	받아쓰기를 활용하면 **영어 공부**를 좀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1(2.5)	7(17.5)	18(45.0)	12(30.0)	2(5.0)

받아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받아쓰기 수업 후, 듣기 자료를 받아쓰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문항에는 10% 만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수업 중 경험한 받아쓰기로 영어 듣기에 자신이 생겼다라는 문항에는 17%의 학생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특히, 받아쓰기 수업으로 영어 쓰기(작문)를 이전보다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문항에는 5%로 단 두 명의 학생만이 그렇다라고 답하여 받아쓰기를 통해 영어 쓰기 자신감 향상에 대한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받아쓰기를 활용하면 영어 공부를 좀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문항에는 35%로 긍정적인 답이 더 많았다.

받아쓰기와 관련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결과를 통해 자신감 보완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설문지 후반에 자유기술 하도록 한 32번 문항의 결과는 유용하다. 학생들은 받아쓰기 수업 시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60%의 학생이 속도라고 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듣기 자료를 처리할 만큼 듣기 실력이 받쳐주지 못하며 이는 듣기 자료의 속도가 빠르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2.5%의 학생들이 철자라고 답하여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도 자신감 고양을 위해 필요한 부분임이 드러났다. 그 밖에 집중력 부족과 듣기의 내용이라고 답한 학생이 각각 10%으로, 학생들의 어휘 부족과 이로 인한 내용 파악의 어려움이 또 다른 난점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밖에 기타의 의견을 낸 학생이 7.5%였다.

6) 자유 기술에 대한 응답

본 실험에서는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참여도, 유용성, 흥미도, 동기유발, 그리고 자신감 등의 5 가지 항목으로 측정한 것 외에 설문지 후반에 받아쓰기에 대한 학생들 개인적인 의향을 알아 보기 위해 두 가지 문항에 대해 자유 기술토록 하였다. 그 중 하나는 받아쓰기가 영어의 네 가지 기술 중 어느 부분에 가장 도움을 주는가 라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의 표 11과 같이 요약된다.

표 11

받아쓰기 도움 영어 기술

설문 내용	①듣기	②쓰기	③기타
	빈도 (%)		
(31) 받아쓰기는 **영어**의 어느 **기능**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7(67.5)	11(27.5)	2(5.0)

위의 표에서 보듯, 받아쓰기는 영어의 어느 기능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67.5%의 학생이 듣기라 답하였으며, 27.5%의 학생이 쓰기라고 답하였다. 듣기와 쓰기를 모두 답한 학생을 포함해 기타의 의견을 낸 학생은 5%였다.

자유 기술하도록 한 또 하나의 질문은 받아쓰기 할 때 가장 어려웠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다음의 표 12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류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2

받아쓰기 어려운 부분

문항 번호	설문 내용	①내용	②철자	③속도	④집중력	⑤기타
		빈도 (%)				
(32)	받아쓰기 수업 시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4(10.0)	5(12.5)	24(60.0)	4(10.0)	2(7.5)

받아쓰기 수업 시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수의 학생들은 받아쓰기 할 때 어려운 점으로 듣기자료의 속도를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60%의 학생이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할 때, 속도가 어려운 점이었다라고 답하였으며, 철자가 12.5%, 내용과 집중력이 각각 10%였다. 이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에 비해 듣기 자료의 속도가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어휘력 부족으로 인한 내용파악의 어려움이 받아쓰기 수업에서의 난점으로 드러나 속도와 어휘 부분이 해결해야 할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2. 성적에 따른 받아쓰기 수업에 대한 참여도, 유용성, 흥미도, 동기유발, 자신감의 집단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에 대한 5가지 요인들에 대한 결과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실험 전, 토익 청해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청해 시험을 100점 만점으로 한 결과에서 55점부터 67점까지 22명이 상위 집단으로, 54점에서 38점까지의 19명을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상위집단의 평균 점수는 60.77점, 하위 집단의 평균 점수는 46.26점이었으며 이 두 집단 간에 받아쓰기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행하였다. 아래의 표 13은 받아쓰기 요인을 성적에 따라 상과 하의 집단으로 나누어 성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3
받아쓰기 요인의 집단간 차이

받아쓰기 요인	성적	N	M	S.D.	t	p
참여도	하	19	3.68	.60	-1.20	.239
	상	22	3.91	.60		
유용성	하	19	3.41	.49	-0.43	.668
	상	22	3.48	.60		
흥미도	하	19	3.61	.69	0.23	.817
	상	22	3.55	.83		
동기유발	하	19	3.69	.54	0.90	.372
	상	22	3.53	.63		
자신감	하	19	2.94	.47	0.76	.448
	상	22	2.79	.76		

* P<.05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T-test 결과, 5 항목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난 평균값을 보아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0.3 안팎의 근소한 차이여서 받아쓰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T-test 결과를 보면, 참여도에 대한 응답 중, 하위집단의 평균은 3.68, 상위 집단은 3.91이었다. P는 .239로서 p<.05, 즉 .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받아쓰기에 대한 참여도에 있어 듣기 능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음이 밝혀졌다. 유용성의 경우는 하위 집단의 평균이 3.41, 상위 집단은 3.48, 그리고 p는 .668로서 p>.05 이므로 유용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다. 흥미도의 결과는 하위 집단의 평균이 3.61, 상위 집단은 3.55이며 p가 .817로서 p>.05, 동기 유발의 경우는 하위 집단의 평균이 3.69였으며 상위 집단의 평균은 3.53, p는 .372로서 역시 p>.05로서 흥미도와 동기 유발의 경우도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항목에서도 하위집단의 평균은 2.94, 상위 집단은 2.79였으며 p는 .448로서 p>.05 이므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받아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는 성적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에 대한 참여도, 유용성, 흥미도, 동기유발, 자신감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받아쓰기와 관련된 참여도, 유용성, 흥미도, 동기유발, 자신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술한 받아쓰기의 5 가지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받아쓰기 요인간의 상관관계

받아쓰기 요인	참여도	유용성	흥미도	동기유발	자신감
참여도	1				
유용성	.241	1			
흥미도	.320*	.620**	1		
동기유발	.143	.636**	.718**	1	
자신감	.207	.613**	.696**	.633**	1

*p<.05, **p<.01

상관관계 분석 결과, 참여도와 흥미도와는 r=.320 (p<.05)의 정적(positive)인 관계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받아쓰기 수업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흥미를 더 느끼게 되는 관계에 있다. 유용성과 흥미도와의 관계는 r=.620 (p<.01)로 보다 강한 정적인 관계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받아쓰기가 영어 학습에 유용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강할수록 받아쓰기 수업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용성과 동기유발과의 관계는 r=.636 (p<.01), 유용성과 자신감과의 관계는 r=.613 (p<.01), 흥미도와 동기유발과의 관계는 r=.718 (p<.01), 흥미도와 자신감과의 관계는 r=.696 (p<.01), 자신감과 동기유발과의 관계는 r=.633 (p<.01)로서 모두 강한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흥미도와 동기 유발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참여도와 유용성, 참여도와 동기 유발, 참여도와 자신감 간에는 r=.143 에서 r=241 정도로 .p<.05, p<.01 모두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받아쓰기 수업에의 참여하는 정도가 받아쓰기를 유용하게 인식한다거나, 영어학습에의 동기를 유발하지는 않으며, 적극 참여하는 것이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을 낳는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 영어 교육의 목표인 영어 의사 소통능력과 연계하여 듣기의 중요성을 재 조명하고 듣기 교수 방법의 하나로서 받아쓰기의 장점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받아쓰기에 대한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영어 듣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수업에서 실제 받아쓰기를 실행하여 학습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받아쓰기 수업을 위한 논의와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받아쓰기 수업에서의 참여도와 흥미도, 유용성에 대한 인식, 받아쓰기가 미치는 영어 학습 동기 유발의 정도, 그리고 받아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였으며, 측정치가 영어 듣기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또한 이들 5가지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받아쓰기를 실시한 영어 듣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는 매우 높았으며, 학생들 받아쓰기가 영어 학습에 대체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듣기 수업에서 실행한 받아쓰기는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업에의 참여도와 받아쓰기에 대한 유용성, 그리고 영어학습에의 동기 유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받아쓰기가 영어 학습에 흥미를 주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받아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받아쓰기 수업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인식과 태도들을 듣기 능력에 따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검증해 본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받아쓰기에 대한 5가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많은 부분이 매우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 흥미도와 동기 유발, 흥미도와 자신감, 유용성과 흥미도, 유용성과 동기유발, 그리고 유용성과 자신감, 동기 유발과 자신감간에서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참여도와 흥미도 간에도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받아쓰기 수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받아쓰기는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켜 듣기 자료에 몰입하도록 하는 장점을 지님으로써 듣기 수업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참여도를 단지 태도에 한정시키지 않고 보다 나은 영어 학습의 효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 우선, 받아쓰기는 듣기와 쓰기, 그리고 어휘 학습 등에는 도움이 되나 문법과 영어 표현 등을 익히는데 에는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특정한 목적의 원리라 명명하여 받아쓰기 시, 특별한 구문과 단어들을 포함 시켜야 함을 강조한 Sutherland(1967)의 조언은 새겨볼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받아쓰기 수업에서는 매 시간, 혹은 매 단원 마다 제시하는 뚜렷한 교수 목표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받아쓰기는 비록 듣고 쓰는 활동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 학습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단순히 단어만을 쓰게 하거나 따라 적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가 의도하는 교수 내용, 구체적으로 문법, 발음, 어휘, 영어 표현 등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준비,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또한 본 실험 전,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를 실행하면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학습의 흥미와 영어 능력 향상이 갖는 유관 관계를 고려 할 때, 실제 영어 듣기 수업에서 받아쓰기 시, 학생들의 흥미 유발이라는 요인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 준 것이다. 받아쓰기에의 흥미 부족은 받아쓰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받아쓰기에 대한 자신감 고양이 선행될 때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문제는 자유 기술한 학생들의 응답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즉, 학생들은 받아쓰기 시, 속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여 듣기 자료의 속도가 자신감 저해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교재 선정이 우선이다. 그러나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모여있는 현실적인 학습 환경을 고려할 때, 받아쓰는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자료임에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어려운 단어와 기초적인 단어, 연음, 문법적 요소들을 달리하여 유인물을 준비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서, 혹은 약간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받아쓰기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학생에 대한 수준 파악이 필요하여 교수자의 수업 준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학습자 개인마다 학습 능력과 반응의 속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차에 따른 강점과 약점을 반영토록 한 Sutherland(1967)의 조언은 받아쓰기 수업 시, 자신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신감의 문제는 동기 유발에도 영향을 미쳐 영어 학습 전반에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받아쓰기에서의 자신감 고양은 받아쓰기 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받아쓰기는 교수자의 언어 지식과 경험, 적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학습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단순히 빈칸 채우기나 메모하기 단계에서 상향하여 실제 받아쓰기가 듣기 학습에 유용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와 흥미를 증진시켜 듣기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므로 교수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동기, 성향 등을 고려한 받아 쓰기 수업은 자신감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어 더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알아가고 보완하는 기회를 갖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인 받아쓰기 수업이 되어 영어 학습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참 고 문 헌

Asher, J. (1997). *Learning another langue through actions: The complete teacher's guide book* (2nd ed.). Los Gatos, CA: Sky Oaks Productions.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Byrne, D. (1977). *Listening comprehension practice (Teacher's book).* London: Longman.

Davis, P., & M. Rinvolucri. (1988). *Dictation: New methods, new possibil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Dunkel, P. (1986). Developing listening fluency in L2: Theoretical principles and pedagogical considerations. *Modern Language Journal, 70,* 99-106.

Feyten, C. (1991). The power of listening abilities: An overlooked dimension in language acquisition. *Modern Language Journal, 75,* 174-180.

Frodesen, J. (1991). Grammar in writing.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 268).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Gary, J. O., & Gary, O. (1981). Caution: Talking may be dangerous to your linguistic health. *IRAL, 19,* 1-14.

Goodman, K.S. (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H: Heinmann Educational books.

Kim, W. Y. (2008). Using dictation tests to improve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 EFL situa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4), 73-92.

Krashen, S. (1981). *Bilingual educ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In *Schooling and language minority students: A theoretical frame work* (pp. 51-79). Los Angeles: Evaluation, Dissemination and Assessment Cente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mbert, W. E. (1986). Fairing first and second language speech and writing in ways that aid language acquisition. In J. Vaid (Ed.),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s: Psycholinguistic and neuropsychological perspective* (pp. 65-9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Marchi, G., & Najul, M. (1994). Note-taking: The link between oral and written production, *English Teaching Forum, 32*(2), 46-48.

Nakamura, Y. (1987). *Bulletin of the Faculty of Education, Kagoshima University*. Studies in education Vol. 39, pp. 149-164. Retrieved April 5, 2009, from the World Wide Web: http://ir.kagoshimau.ac.jp/bitstream/10232/6718/1/AN- 10041362_1987_008. pdf.

Nam, E. H., & Seong, M. H. (2009). The effects of dictation practice in English listening clas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4), 177-197.

Oller, J. W. Jr. (1972). Dictation as a test of ESL proficiency. In B. A. Herald & N. C. Russel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p. 346-354). NY: McGraw-Hill.

Paulston, C. B., & Bruder, M. N.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 Winthrop Publishers, Inc.

Postovsky, V. (1981). The priority of aural comprehension in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In H. Winitiz (Ed.), *The comprehension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nstruction (pp. 170-186). Rowley, MA: Newburry House.

Sawyer, J. O., & Silver, S. K. (1972). Dictation in language learning. In H. B. Allen & R. N. Campbell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p. 223-229). San Francisco: McGraw-Hill International Book Company.

Scarcella, R., & Oxford, R. (1992). *The tapestry of language learning: The individual in the communicative classroom*. Boston, MA: Heinle & Heinle.

Solobin, D. I. (1985).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Theoretical issues.*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utherland, K. (1967). The place of dictat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TESOL Quarterly, 1*, 24-29.

Underwood, M. (1989). *Teaching Listening.* New York: Longman.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남은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언어과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11
C.P.: 010-8747-8808
Email: hieuni @hanmail.net

성명희
을지대학교 여가디자인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212
Tel: 031-740-7255
Email: seoung@eulji.ac.kr

Received in July 13, 2010
Reviewed in August 20,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ember 15, 20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